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의제 전개과정

일반네트즌공간과 참여네트즌공간의 차이

박은희

(대전대 신문방송학과)

이수영

(대전대 신문방송학과)

본 연구는 '성수여중생폭력사건(2000년 4월 12일 발생)'을 계기로 갖게 된 관심, 즉 사이버공간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혹은 그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사이버공간 안에서 발의되는 수많은 의제들이 어떤 경우는 사라지고 어떤 경우는 큰 반향을 일으켜 매스미디어로 공간을 넓혀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 사이버공간이 매스미디어의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성수여중사건이 지니는 특징은 첫째, 의제 발의의 주체가 소시민이라는 것, 둘째, 사이버공간이 기존 주류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의제를 매스미디어의제로 발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으며, 셋째는 사이버공간 안에서 확산된 하나의 사건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으로 운동차원으로 그 영역을 급속히 확대해 갔다는 점들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공간으로 작동하려면 사이버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 사이버공간과 오프라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키워드: 사이버공간, 의제설정, 공론장, 오프라인

1. 문제제기

2000년 4월 12일 성수여중 2학년 허모(14)양이 선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4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폭행으로 가해자 학생들을 기소하였으나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송은 하루만에 기각되었고, 피해자 어머니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 탄원서를 게시하면서 사건은 확산되었다.

‘성수여중생폭력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담당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경향신문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이를 서울 광진구 지역 온라인신문사인 광진닷컴에서 보도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일간신문사는 물론 SBS, MBC의 기획보도프로그램에서까지 다루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사이버공간 속에서 사건의 경위를 밝히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인 자신의 딸은 불가피하게 전학을 가는 대신 가해학생들은 5일간의 사회봉사 후 학교에 다시 다니고 있다는 등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가해자로 알려진 5명 중 한 명인 김양의 아버지가 자유총연맹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분노를 더 자극하였고, 가해자 명의의 허위 글까지 등장, 비난이 급속히 확산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티즌에 의해 김양의 사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사이버공간에 알려지면서 가해자인 김양의 아버지가 허위글과 사진을 올린 익명의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이버공간 안에서 확산되면서 천리안 하이텔 등의 일반 PC통신은 물론 인터넷에 사건 관련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면서 네티즌의 조직적인 토론과 게시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사건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의제가 사이버공간 안에서 발의되어 확산되다가 종국에는 매스미디어의제로 채택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사이버공간 안에서 확산된 하나의 사건

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으로의 운동차원으로 그 영역을 급속히 확대해 갔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성수여중사건’을 계기로 갖게 된 관심, 즉 사이버공간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혹은 그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사이버공간 안에서 발의되는 수많은 의제들이 어떤 경우는 사라지고 어떤 경우는 큰 반향을 일으켜 매스미디어로 공간을 넓혀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 사이버공간이 매스미디어의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의제는 매스미디어 의제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의제(agenda)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적 사안에 관한 쟁점(박선희, 2000, 67쪽)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제는 기자나 전문 필진에 의해 가공되는 매스미디어 의제와는 달리 개인의 푸념이나 분개, 호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나열 등과 같은 ‘수다’(talk)형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의 제처럼 곧바로 쟁점의 모습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수다의 형식 안에 숨어있는 의제를 찾아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수여중사건’도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문 안에서 집단 구타, 학교폭력의 문제, 권력의 문제와 같은 쟁점들을 네티즌이 끌어낸 경우이다

성수여중사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간들이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며 그 특성에 따라 같은 의제라도 관심의 대상이나 주목하는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천리안과 하이텔과 같이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의 경우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사이트를 조성,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적극 참여공간을 만들어내는 다음카페나 안티성수와 같은 사이버공간은

서로 판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둘간의 차이를 보면 첫째는 천리안이나 하이텔의 자유게시판은 일반인 모두에게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게시판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전자의 경우 게시물의 주제, 내용이 포괄적이고 자유롭게 개진되는 반면 후자는 특별히 정해진 주제를 갖고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동일한 주제에 한해서만 토론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는 전자의 경우 글을 게시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게시된 글을 조회만 하는 잠행자(lurker)가 대다수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조회수와 회원의 수가 거의 일치할 만큼 회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한 참여가 중요하게 취급된다. 넷째, 천리안이나 하이텔의 자유게시판에서는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욕설, 비방 등 일반 통신상의 윤리가 네티즌의 활동의 최소한의 규율인 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별도의 운영자가 존재하여 사이트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동호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규칙을 만들어 회원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 하이텔의 자유게시판과 같은 공간을 ‘일반 네티즌공간’으로, 회원가입을 통해 동호회형식의 활동을 전개하는 다음카페와 같은 공간을 ‘참여네티즌공간’이라 부르고 이 두 공간에서 각기 네티즌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토론을 통해 의제에 참여하는 방식 등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의제가 발의되고 확산, 소멸되는 과정은 어떠하며 각 단계에서 이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 사이버공간의 특성, 즉 일반 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에 따라 의제 전개과정의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연구문제3 : 사이버공간에서 발의된 의제가 매스미디어의제로 채택되는 경우 일반 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의 특성에 따른 반응과 대응방식은 어떠한가?

2. 문헌연구

1) 사이버공간, 공론장,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와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제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특정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시민들의 의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민주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디어의 민주적 역할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개념이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7-18세기의 유럽의 부루즈와들 사이에서 존재했다고 하는 공론장은 국가와 시민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론장안에서 부루즈와들은 개인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인 이슈를 비판적인 담론을 통해서 논의했으며 이 논의의 결과는 여론의 역할을 하였다(Harbermas, 1989).¹⁾ 이러한 공론장은 세 가지

1)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1.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여성과 노동자 계급을 배제시켰다(Calhoun, 1992; Friedland, 1995; Fraser, 1992; Keane, 1989); 2.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단수의 공론장만을 강조한다(Fraser, 1992; Dalhgren, 1991); 3.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진짜로 존재했는가에 의문이 있다(Friedland, 1995; Schudson, 1992); 4.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모든 나라에서의 여론형성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Lee, 1996).

의 하부개념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하부개념은 독립성으로 국가나 경제세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정도이며, 둘째는 접근성 또는 평등성으로 공론장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정도와 참여자들간에 평등한 위치가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정도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부개념은 다양성으로 공론장 안에서 다양한 이슈의 논의가 얼마나 가능한가이다(이수영, 1997).

공론장은 오늘날 우리의 미디어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현존하는 미디어 조직에 공론장의 세 개 하부개념을 적용한다면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미디어 조직도 국가와 경제영역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거대한 미디어 조직에 일반 공중들이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점, 그리고 뉴스가치의 이름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 엘리트 뉴스 소스와 미디어 조직간의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이슈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미디어에게서 민주적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안적 미디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의 대안 미디어로서의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으나(Benson, 1996; Bertelson, 1992; Brants, Huizenga & van Meerten, 1996; Calabrese & Borchert, 1996; Doheny-Farina, 1996; Hacker, 1996)²⁾ 특별히 스트로머-갤리(2000)는 사이버 공간이 사회의

2) 학자들은 사이버공간이 네티즌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론형성이 가능하다고 논의하고 있다(Brants, Huizenga & van Meerten, 1996; Calabrese & Borchert).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Bertelson, 1992; Hacker, 1996). 사이버공간을 통한 담론형성의 가능성을 연구한 경험적인 연구들 중 벤슨(Benson, 1996)은 정치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도헤니-파리나(Doheny-Farina, 1996)는 그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평적인 측면과 수직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Stromer-Galley, 2000). 수평적인 측면이란 시민들이 사이버공간에 접속함으로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특정 문제에 대해 게시판이나 토론방을 구성하여 토론을 하며 더 나아가 투표까지 행함으로써 투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사이버공간이 엘리트 집단과 비엘리트 집단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시민들과 엘리트 집단간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일반 시민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의제를 발의하면 발의된 의제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트로머-갤리가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프리드랜드(Friedland, 1996)는 사이버공간의 민주주의적 활용 가능성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될 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공간상의 논의가 논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의 해결을 위한 사회 운동의 성격을 띠거나 혹은 사이버공간상의 운동성이 오프라인에서의 사회 운동과 결부될 때 그 민주적인 이용의 가능성은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달그렌(Dahlgren, 1996)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 공론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려면 특정 미디어를 매개로 한 미디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넘어 시민들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사이버공간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는 네티즌의 익명성에 근거한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담론형성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마이어스(Myers, 1987)는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는 익명성은 대화에 필요한 규칙-즉 대화시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실제 익명성이 보장된 토론방이나 게시판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토론보다는 욕설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사이버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사이버 공간의 특성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실질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의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임(Baym, 1995, pp. 141-149)은 사이버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적인 상황, 시간적 구조, 시스템 구조, 집단의 목적 그리고 참여자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외적인 상황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 또는 PC통신의 게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 즉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이 이에 속한다. 시간적 구조는 참여자가 온라인 상에 동시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동시성과 비동시성으로 나뉘는데 이 둘간의 차이는 즉각적인 피드백의 가능성,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메시지를 작성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특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스템 구조란 컴퓨터의 속도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조건, 시스템 적용성, 그리고 얼마나 사용자가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인터넷 사이트나 PC통신 게시판의 디자인,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가 등은 실질적으로 참여자의 이용빈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밖에 집단의 목적은 특정 사이버 공간을 만들게 된

목적에 말하며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성격으로는 참여자의 수, 참여 기간, 참여자들의 이슈에 대한 인식 정도, 참여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주류 미디어의 이용 변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참여 정도를 들 수 있다. 특히 참여 정도는 사이버 공간의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이버공간이 기존 미디어에 비해 접근성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의 수는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슈나이더(Schneider, 1996)는 유즈넷(Usenet)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관찰을 통해서 실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의견을 직접 게시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읽어보기만 하는 잠행자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참여자의 소극성을 지적한 바 있다.

3) 사이버공간 의제의 특징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서 논의되는 내용은 전문적인 이슈를 다룬 것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이다. 배임(Baym, 1995)은 인터넷의 유즈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이용 행태 조사를 통해서 게시판이나 토론방은 전문적인 이슈보다는 개인적인 이슈를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상에서 시민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슈를 자연스럽게 발의할 수 있고 이것이 사이버공간상에서 네티즌의 의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은 의제 발의의 주체가 다양할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기존의 뉴스 미디어들의 의제들은 많은 부분 권위주의적인 엘리트 소스에 의존해 온 데 비해 의제 발의의 주체가 비권력 계층이나 일반 개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말한다.

4)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와의 관계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와의 관계는 주류미디어와 대안미디어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앞서 달그렌이 제시한 ‘복수 공론장’ 개념은 다른 성격을 지닌 매체들간의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달그렌(Dahlgren, 1991)은 공식적인 공론장은 주류 미디어일지라도 대안적인 미디어가 또 하나의 공론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미디어의 행위는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주류미디어는 대안 미디어의 의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크지만 대안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 미디어의 의제를 주류 미디어에서도 의제로 채택하게 된다. 이 경우 초기에 주류 미디어는 대안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안 미디어의 의제를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미디어의 의제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 둘간의 상호작용은 민주 사회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의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류미디어의 입장에서 대안미디어의 의제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대안미디어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의제가 주류 미디어의 의제로 확산될 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류미디어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주류 미디어와 대안 미디어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는 매스 미디어와 사이버공간과의 관계로 확대시킬 수 있다. 달그렌의 지적처럼 대안적 미디어인 사이버공간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사이버공간 의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고 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매스 미디어에 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스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이 없을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사이버공간 의제가 그렇듯이 사이버공간 안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사이버공간 의제를 만들어 가는 네티즌의 입장에서도 매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의제를 다뤄줄 것을 원하게 된다.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사례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성수여중 사건’을 사례 분석하였다. 이 사건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앞서도 밝혔듯이 천리안, 하이텔 등의 일반사이버공간 뿐 아니라 안티성수, 예스안티(yesanti), 다음카페 등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참여네티즌공간을 확보해왔다는 점이다.³⁾

사이버공간 안에 게시된 의견이나 네티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사이버공간을 선정하였다. 일반 네티즌공간으로는 천리안의 일반 자유게시판을, 참여네티즌공간으로는 다음 카페에 개설된 ‘성수여중폭력사건’ 토론방을 분석사례로 정하였다. 천리안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선은 자료접근의 가능성 때문인데 일반 네티즌공간의 또 하나의 대표격인 하이텔에서는 일반 자유게시판인 ‘플라자’의 경우 일정 시기가 지나면 게시물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분석시기에는 이미 성수여중사건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다. 참여네티즌공간으로 다음카

3) 2000년 8월, 다음에 개설된 ‘성수여중폭력사건’ 카페(cafe.daum.net/ssvgirl)에는 3개월만에 회원수가 13,000명을 넘어섰다.

페를 선정한 것은 성수여중과 관련하여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매스미디어보도내용과 다른 사이트에서의 활동내용, 오프라인활동 등 관련내용들을 모두 게시하는 등 회원들의 활동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 자료수집

분석대상에 따라 각기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일반 네티즌공간인 천리안의 경우 ‘게시판/토론’ 중 ‘나도 한마디’에 일반인들이 올린 성수여중 관련 내용을 갈무리하였다. 첫 게시물은 2000년 8월 6일 올린 ‘[필독] 성수여중사건에 대한 자유총연합..’이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471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8월 6일부터 올라온 성수여중 관련 게시물은 10월 29일 ‘성수여중사건...어제 확인한 새로운 사실’이라는 글로 마무리되었으며 11월 2일부터는 성수여중사건과 유사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다룬 옥정여중사건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00. 8. 6 ~ 2000. 10. 3까지 게시된 성수여중사건관련 게시물은 총278건이었으며, 이중 동일한 아이디의 게시자를 제외하면 총 156명의 사람이 의견을 올렸으며 이 글들을 읽은 조회수는 82,228회에 달했다. 결국 156명 이외의 나머지 조회만을 한 사람 즉, 잠행자가 8만 여명에 이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두번째, 참여네티즌공간으로 선정된 다음카페의 ‘성수여중사건’사이트 중 ‘성수여중폭력사건토론펠’에서는 2000년 8월 9일 첫 게시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회원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 12월 31까지 올라온 9,381개의 게시물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내용 및 방법

연구문제1의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에 의해 발의된 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 소멸되는지의 과정과 추동요인을 포함한 의제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건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분류,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에서 다룬 의제와 게시물 수 및 조회수를 통해 의제에의 관심과 참여정도를 파악하였다.

앞서 문헌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사이버공간 중 일반 네티즌공간에서 의제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수 몇몇에 의한 게시물 수보다는 조회수라는 점에서 게시물 당 평균 조회 수를 측정하였다. 참여네티즌공간의 경우는 일반 네티즌공간과는 달리 회원의 수나 게시물의 수가 참여와 관심의 정도 측정에 더 의미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게시물 수를 측정하였다.

연구문제2의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른 의제전개과정의 차이는 일반 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에서 각기 다뤄진 의제의 내용과 활동양상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연구문제3을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의 보도일지를 구성하고, 지상파방송에서 기획으로 다룬 심층보도프로그램들의 실제 내용을 통해 보도방식과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밖에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된 후 일반 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 각각에서 나타난 게시물 수의 변화와 게시물의 내용에서 드러난 사이버공간에서의 반응을 통해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제의 전개과정; 생성, 확산 그리고 소멸

(1) 생성-확산-소멸의 시기분류

의제가 전개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생성-확산-소멸 세 단계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는 최초 의제가 사이버공간 안에 올라오면서부터 사이버공간 안에서 사라지는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이다. 시기분류의 기준은 우선 일반 네티즌공간인 천리안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는 참여네티즌공간의 특성이 그러하듯 다음 역시 의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제 전체의 과정을 살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각 단계의 분류시점은 일차적으로 천리안에서 의제가 생성된 시기와 소멸되는 시기를 찾아낸 후 이를 기준으로 중간과정을 확산시기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의제의 생성(7/19~8/6)

성수여중사건의 실제 발생은 2000년 4월 12일에 일어났으나 사이버공간에서 의제로 떠오르는 7월 19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경향신문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탄원서가 게시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지역 온라인 신문인 광진닷컴(광진구 지역 온라인신문)에서 보도하면서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4.12~ 성수여중 사건 발생

7.19 피해자 어머니가 담당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를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림

7.22 경향신문 자유게시판에 탄원서 게시, 6천 건이 넘는 조회회수 기록

7.22 광진닷컴에서 보도 시작

7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의 탄원서 게시를 시작으로 ‘성수여중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사실을 포함하여 인터넷 안에서 네티즌 사이에 이 탄원서를 기초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기까지를 의제의 생성 단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의제의 생성기간은 7월 19일에서 8월 6일까지 포함하였다. 여기서 8월 6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사실전달을 위한 게시물들이 올라오는 것은 하나 8월 7일 성수여중 가해자 학생이 올린 글(후에 익명에 의한 허위 글로 판명됨)이 성수여중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네티즌의 분노를 고조시키고 이 사건을 네티즌 사이에 순식간에 확산되도록 일파만파의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시점이라는 점에서 7월 이전, 즉 6일까지를 생성시기로 본 것이다. 실제 천리안이나 다음에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은 각기 8월 6일과 9일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경향신문 자유게시판, 광진닷컴에서의 보도를 제외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제 생성시기는 8월 6일 단 하루로 제한되는 셈이다.

· 의제의 확산(8/7~8/22)

의제확산의 시기는 의제소멸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여기서 의제소멸시기는 8월 22일 이후로 분류하였다. 그 까닭으로는 천리안의 경우 8월 22일 이후 약 3일간 게시물이 없다가 한 두 건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8월 29일부터는 ‘성수여중 묻히면 안 된다’는 독려성 의견이 게시되다가 다시 9월 19일 가해자 글로 위장, 허위의 글을 올린 윤모씨의 구속기사가 등장한 이후는 거의 관련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의제의 소멸(8/23~10/3)

소멸시기는 8월 23일부터 서서히 소멸하여 옥정여중 사건으로 넘어간 10월 3일까지로 나누었다. 소멸시기는 일반 네티즌공간인 천리안에서 성수여중사건 관련기사가 사라진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의제의 소멸이후(10/4~)

참여네티즌공간인 다음카페의 경우는 소멸 이후의 활동이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일반 네티즌공간과 가장 차별성을 드러내는 대목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천리안에서 의제가 소멸된 이후인 10월 4일부터 25일까지의 내용을 더 살펴보았다.

(2) 각 단계별 특징과 추동요인

① 의제의 생성단계

의제생성단계란 사이버공간 안에서 최초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단계를 말한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 4월이지만 이 내용을 피해자 어머니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7월 19일, 이후 경향신문 자유게시판과 광진닷컴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알려진 지 약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천리안을 통해 소개된 셈이다.

사건의 내용이 처음 사이버공간에서 의제로 발의되면서 이에 대해 일반네티즌이 가진 관심의 정도는 조회 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5건의 관련 게시물에 대해 조회수가 1,921건으로 게시물 건수 당 평균 조회수가 의제확산시기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의 초기 5건의 게시내용을 보면 사건에 대한 세부설명, 가해자학생의 주소, 이메일 공지, 광진닷컴에서의 보도사실 전달, 나무누리에서 퍼온 사건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초기 생성단계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었던 데에

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의제의 성격인데 사건의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고, 개인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등 대단히 직접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언론의 역할이다. 비록 매스미디어는 아니지만 광진닷컴이라고 하는 지역언론이 개인의 호소문을 지역뉴스로 보도하였고 그 내용이 초기 게시물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의된 의제임에도 구체성과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 의제생성단계에서 지적할 만한 가장 특징적인 면은 발의의 주체가 개인(피해자 어머니)이라는 점이다. 사이버공간이 민주적 공론장에 기여하려면 의제발의의 주체가 일반시민으로 옮겨 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성수여중사건은 사이버공간의 민주주의에의 기여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의제의 확산단계

의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의제의 성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큼 의제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련 소식들이 등장해 줄 때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전반의 문제에 맞닿아 있는데다가 폭력의 정도나 상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특별히 사건처리과정에서 권력집단(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속한 자유총연맹)이 개입되었다는 의구심까지 불러내 네티즌들의 분노를 확산시키면서 의제가 오래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의제확산단계로 분류된 8월 7일에서 8월 23일까지 네티즌들의 관심을 고조시킨 사건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안티성수사이트 서명운동 실시(8.7), 가해자 학생을 사칭한 3개의 글(김양아버지, 자유총연맹, 야당총재 연관성 주장) 등장, 파문확산(8.7), 가해학생의 아버지 자유총연맹 사직서 제출(8.11), 가해학생의 아버지 사과문발표(8.14), 가해학생의 아버지 네티즌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8.21)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인터넷에) 아무리 내 사진을 올려도 올 아빠한테 못 당할걸? 니네들 000연맹이 어떤 단체인 줄 알아?... 두고 보자는 XX들치고 무서운 놈 하나도 없더라’는 글이 가해학생 이름으로 사이버공간에 떠돌아 다니면서 네티즌을 자극하였고,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함으로써 네티즌과 가해자 측의 대결구도를 심화시키는 등 유언비어성 반대여론의 등장이 인터넷여론몰이의 기폭제가 되었다.

③ 의제의 소멸단계와 소멸 이후

8월 23일 이후부터 천리안의 경우 현저하게 게시물수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월 19일 가해자를 사칭하여 허위 글을 작성한 윤모씨 구속기사가 보도되자 급격히 게시건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천리안의 경우 네티즌들이 다른 사건으로 관심을 신속히 이동하였으며 10월 3일 이후는 관련 게시물이 한 건도 등장하지 않았다.

<표 1> 시기별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제 게시건수와 조회건수

인터넷 시기분류	천리안/일반 네티즌공간		다음카페/참여네티즌공간
	게시물수(총건수/ 일일평균 게시건수)	조회수(총조회수/ 게시물당 평균조회수)	게시물수 현재 등록된 게시물 (일일평균 게시건수)/ 삭제된 게시물 포함 수 (일일평균 게시건수)
의제생성시기 (2000.8.6)	5건/5건	1921명/384.2명/2.3%	-
의제확산시기 (8.7-8.22)	225건/14.1건	68876명/306.1명/83.8%	903건(56.4건)/ 1206건(75.4건)/15.1%
의제소멸시기 (8.23-10.3)	48건/1.1건	11431명/238.1명/13.9%	3605건(85.8건)/ 6054건(154.9건)/75.8%
의제소멸이후 (10.4-10.25)			466건(21.2건)/ 729건(33.1건)/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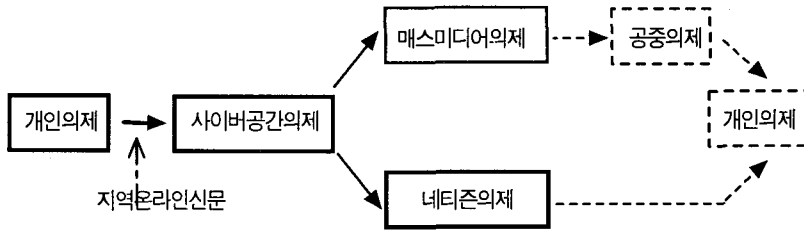
<표 2> 의제의 전개내용

의제의 전개과정	사이버공간 게시/토론		보도일지	운동일지
	천리안 자유게시판	다음 성수여중사이트		
의제의 생성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건/일일 5건의 게시물 · 총 조회수 1921건 · 주요게시내용; 사건에 대한 세부설명, 가해자학생주소, e-mail공지, 광고댓글보도 전달, 나누누리 등에서 퍼온 사건내용 공지. 			
의제의 확산 8.7-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25건/일일평균 14.1건의 게시물 · 총 조회수 6887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 성수여중폭력 사건카페 개설 · 총 회원 11,758명이 활동(2001.1.31현재) · 총 게시물수 903건/일일평균 56.4건 · 이 중 삭제된 게시물을 포함하면 총 1206건/일일평균 75.4건의 게시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0 SBS모닝 와이드에서 보도 · 8.10 MBC뉴스 데스크에서 보도 · 8.20 동아일보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4 다음카페에 네티즌간의 경기 모임 시작(정형실시) · 8.20 피해자 어머니 서명운동 시작
의제의 소멸 8.23-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8건/일일평균 1.1건의 게시물 · 총 조회수 1143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게시물수 3605건/일일평균 85.8건 · 삭제건수 포함 총 6054건/일일평균 154.9건 등록 · MBC PD수첩이 방영된 29일 이후 게시건수는 최고점을 이루는데 30일 567건, 31일 663건, 9월 1일 353이 등록됨(삭제기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5 연합통신 보도 · 8.25 경인방송 <르포 인사이트>에서 보도 · 8.29 MBC <PD 수첩>에서 보도 · 9.2 MBC <뉴스 데스크>에서 보도 · 9.2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 · 9.19 연합통신 보도(가해자의 명의 사용한 대학 생 검거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5 시민/지역/진보운동단체들의 대책위원회 구성 · 8.25 다음카페, 예찬티 등 성수여중폭력사건 관련 사이트 온라인서명운동 통합추진 · 8.30 Off-line상의 서명운동 실시 · 9.5 대책위 피해자 위한 모금운동/편지쓰기 제안 · 9.6 대책위 off-line 게시판 신설 · 9.15 서명운동 오프라인으로 확대 실시 · 9.22 법률신문 월요법정에 실린 윤재룡검사글에 대해 1차 온라인시위 전개 · 9.24 대책위 종료에서 서명운동 실시
의제 소멸 이후 10.4-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2 대책위, 학교폭력근절 지역토론회 개최 · 10.15 다음카페, 전국 동시 정기모임/서명운동 실시 · 10.26 다음카페, 법률신문에 대한 2차 온라인시위 전개

이상 성수여중사건이 사이버공간에 등장하여 소멸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 의제발의의 주체, 의제의 전개과정, 의제의 성격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의제발의의 주체가 개인이다. 여기서의 개인은 엘리트나 권력집단에 속한 개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의제의 전개과정이 아래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매스미디어에 의한 의제형성과정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림 1> 매체별 의제형성과정의 비교

기존 의제형성과정에서는 매스미디어의제가 공중의제로 회자되고, 개인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인 데 비해 사이버공간을 통한 의제발의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한편으로는 네티즌의제에서 다시 개인의 의제로 전개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매스미디어의제로 확산되어 공중의제, 개인의제의 순서에 따라 형성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⁴⁾

셋째, 의제의 생성과 확산을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제의 성격에 달려있다. 의제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폭력성과 선정성과 같은 내용의 자극적 속성, 의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의 지속적인 공급 등이 생성과 확산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된다. 그

4) 매스미디어의제가 공중의제로 혹은 개인의제로 옮겨가는 부분은 의제설정이론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중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는 의제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의제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위협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짓정보이기 때문이다. 위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사이버공간 안에 사건이 등장하면서 지역미디어인 광진닷컴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라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의제의 사실성을 일정 정도 담보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이버공간의 특성, 일반 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

연구문제 2에서 제기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른 의제 전개과정을 보면 일반 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의제의 생성시기가 빠져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이 지니는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다음카페와 같은 참여네티즌공간은 의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후에 그 의제에 관한 특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이므로 초기 의제의 생성단계는 지나치는 예가 대부분이다.

참여네티즌공간의 분석 사례인 다음의 ‘성수여중폭력사건’ 사이트는 사건을 의제화하는 과정에서 욕설, 가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과도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보다 조직적인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카페이므로 이미 의제생성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카페회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일반 네티즌공간에서 의제가 소멸해가는 시기에 오히려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게시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네티즌공간에서 의제가 소진하여 다음 의제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이행할 때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의제의 토론 단계를 넘어서 운동의 단계로 접어든 탓이다. 이 역시 참여네티즌공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의제전개내용에 있어서도 앞서 <표2>에서 보았듯이 일반 네티즌공간의 의제소멸시기에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온라인운동에서 오프라인 운동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운동의 양상도 다양하게 전개 되는데 온라인서명운동에서 시작하여 모금운동, 온라인시위운동, 배너 달기운동, 피해자에게 편지보내기 운동, 오프라인에서의 서명운동까지 이어졌다. 일반 네티즌공간에서 의제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도 여전히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드러진 것은 오프라인에서 시민,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한 것과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운동으로 확대하는 등 점차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참여네티즌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이버공간을 민주적으로 활용하려는 참여네티즌들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음카페를 운영하면서 네티즌에게 가해자의 실명과 욕설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수시로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게재 글에 대해선 과감히 삭제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규칙을 지켜왔다. 이러한 운영이 네티즌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담론을 가능케 함으로써 구체적인 운동 차원으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담론의 가능성은 사이버공간의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참여네티즌공간에서의 다양한 운동의 확산과 시민운동으로의 발전가능성은 앞서 프리드랜드(Friedland, 1996)가 제안한 것처럼 사이버공간이 그 특성에 따라 민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3)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

연구문제 3은 사이버공간 안에서 발의된 의제가 매스미디어의제로 채

택될 경우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과 대응방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다.

우선 문헌연구에서 본 것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발의된 의제가 매스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경우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다. 그 까닭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의되는 의제들이 첫째 전문가나 엘리트집단이 아닌 일반인이 그 주체이고, 둘째는 의제의 속성상 다분히 개인적인 불만, 문제, 억울함의 호소 등이 지배적이며, 셋째는 설사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와 관심사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 주류미디어와 다른 대안적 가치의 발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설사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제를 채택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는 윤영철, 나승안(1999)의 지적처럼 미디어의 이념적 성향과 부합되거나 상업적 가치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번 분석 사례인 성수여중사건은 신문, 방송을 포함한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지면서 사회 전체로 의제가 확산된 드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3에 대한 답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방식, 보도태도, 의제의 전개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결론에 가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라 매스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이 가져온 결과와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1) 매스미디어의 의제 채택방식

매스미디어가 이 문제를 다룬 시기를 보면 <표2>에서 보는 것처럼 8월 10일 SBS모닝와이드,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였으며 8월 20일 동아일보에서 다루었다. 이 시기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제확산시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 매스미디어의 보도방식 및 내용은 주로 ‘성수여중사건이 단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식의 단순 뉴스(straight

news) 형태를 취하는 데 불과했다.

매스미디어에서 의제가 활발하게 다뤄진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의제가 소멸해 가는 시기이다.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에서 3건의 기획보도프로그램이 편성되었고 경인방송의 <르포 인사이드>, MBC의 <PD 수첩>,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앞서의 단순 사실보도 형식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탐사보도 형식을 띠으로써 보도 성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사이버공간에서 의제의 확산시기에는 침묵하거나 단순 보도로 일관하다가 의제 소멸시기에 와서 심층보도를 하게 되는 것은 윤영철(1998)이 말한 ‘사실로 확인된 논제이거나, 불법 또는 범법행위를 자행한 인물이나 단체와 관련된 논제들의 경우 명예훼손의 논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확인이 이루어지면 PC통신공간을 통해서 상당히 알려진 경우에는 신문이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존 연구내용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 매스미디어의 의제보도태도

지상파방송에서의 보도태도를 보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제 확산현상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우선 제목에서부터 <PD 수첩>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인터넷 피담, 그 안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폭로 그리고 진실’이라는 상당히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상업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용에 있어서는 <PD수첩>의 경우 ‘사이버 폭력’이라는 이름아래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네티즌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가해자 부모들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부각시킨 바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사이버공간에서 살고 있는 다소 비정상적

인 인물을 인터뷰에 담아 희화화시킴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제 자체를 수용자들이 비정상적이고, 사소하며,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게 만들었다.

이러한 태도들은 앞서 주류미디어가 대안미디어의 의제를 채택할 때 대안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 때문에 의제를 부정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달그렌(Dahlgren, 1996)의 지적을 확인해준다.

(3) 의제 전개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 영향

매스미디어에서의 부정적인 보도 태도는 일반 네티즌공간의 경우 의제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주류 매스미디어에 대한 반발과 함께 논의를 더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천리안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보도 이후 급격히 게시물이 사라졌으며, 특히 방송사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게시물에 한 건도 등장하지 않은 데 반해 다음카페에서는 PD수첩이 방송된 이후 8월 30일, 31일의 게시물수가 각기 567건, 663건(지워진 게시물을 포함할 경우 2,090건, 1,27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게시내용도 보도태도에 대한 항의, 비판, 주류미디어에 대한 대안행동의 필요성 등이 주를 이루었다.

분석의 결과 사이버공간에서 발의된 의제가 매스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대체로 사이버공간 안에서 의제가 확산되는 시기이며, 매스미디어가 의제를 채택해줌으로써 의제확산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때의 매스미디어 보도방식은 단순보도로써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현상보도가 대부분이지만 네티즌에게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더 고무되고 의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보도를 넘어 매스미디어가 심층보도를 할 경우 내용을 어떻게 다

루느냐에 따라, 즉 보도태도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식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매스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일반네티즌으로 하여금 의제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를 갖도록 하여 보도 이후 관심을 돌리게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의제소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외는 달리 참여네티즌들은 앞서 본 것처럼 일반 네티즌공간에서와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PD수첩>의 보도방식에 대해 문제삼음으로써 주류미디어에 대한 분노가 촉발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참여네티즌공간을 매스미디어에 대한 본격적인 대안미디어로 자리잡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4. 결론: 사이버공간, 매스미디어,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애초에 이론적 논의보다는 ‘성수여중사건’이라는 사회적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MBC <PD수첩>에서 ‘폭로 그리고 진실’, ‘인터넷괴담, 그것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이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 건지라는 초보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디어가 있는지, 진정한 공론장의 역할을 기대할 대안미디어가 과연 존재하는지 등이 실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사이버공간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의제들이 어떻게 발의되고 사라져버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성수여중사건을 연구사례로 정하고 사이버공간을 살피며 돌아다니는 동안 사

이러한 공간도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며 공간에 따라 같은 의제라도 관심의 대상이나 주목하는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첫째, 사이버공간에서 발의된 의제가 확산, 소멸되는 과정과 이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라 의제 전개과정의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셋째 사이버공간에서 발의된 의제가 매스미디어의 제로 채택되는 경우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른 반응과 대응방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에 따라 천리안과 하이텔 등의 PC통신의 자유게시판과 같은 '일반 네티즌공간'과 회원제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음카페와 같은 '참여네티즌공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성수여중사건이 사이버공간에 등장하여 소멸하는 과정에서 의제발의의 주체, 의제의 전개과정, 의제의 성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의제발의의 주체가 개인(피해자 어머니)이라는 점이다.

둘째, 의제 전개과정이 기존 매스미디어의 의제형성과정과 다르다는 점이다. 기존 의제형성과정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제가 공중의 제로 회자되고, 개인의 제로 설정되는 과정인 데 비해 사이버공간을 통한 의제발의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한 쪽으로는 네티즌의 제에서 다시 개인의 의제로 전개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제로 확산되어 공중의 제, 개인의 제의 순서에 따라 형성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의제의 생성과 확산을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제의 성격으로서 의제의 구체성과 사실성 확보, 내용의 자극적 속성, 관련 사건의 지속적인 생성 등이 의제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문제2의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른 의제전개과정의 차이를 보면

일반 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과의 현격한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반 네티즌공간에서 의제가 사라지는 소멸시기에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더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참여네티즌공간에서의 활동내용이 그간의 토론의 단계에서 운동의 단계로 넘어간 때문으로 일반 네티즌공간에서 이미 의제가 완전 소멸한 이후에도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운동상황에 대한 토의, 보고, 의제의 진척상황들이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3에서 매스미디어에서 성수여중사건을 다룬 방식, 보도태도, 의제의 전개과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매스미디어가 사이버공간의제를 채택하는 시기는 사이버공간 안에서 의제가 이미 충분히 확산된 시기에서였다. 의제를 다루는 태도는 단순보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보도태도가 일반 네티즌공간에서는 의제가 급격히 소멸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참여네티즌공간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부정적 보도태도가 오히려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주류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항의, 온라인 시위운동 등을 촉발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결과의 함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사이버공간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맹목적인 기술결정적 낙관론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라 대안미디어로 기능할 수도 있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전체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공간으로 작동하려면 사이버만으로 국한

되지 않고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 사이버공간(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수여중사건에서 보여준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의 상호작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사이버공간이 기존 주류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의제를 매스미디어의제로 발의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의제의 대부분을 권력구조에 속해있는 엘리트집단에 의존하는 데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만일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가 분리될 경우, 다시 말해 사이버에서 발의된 의제가 매스미디어의제로 발전하거나 소통하지 못할 때는 실제 대부분의 의제가 그렇듯이 단순한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기 쉽다.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이 대안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은 그만큼 축소되고 만다.

둘째, 사이버공간이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발의된 의제의 신뢰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해주는 것은 결국 매스미디어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매스미디어가 가해자의 글이 허위였음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유언비어를 차단,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여론몰이를 잠재우는 역할을 한 바 있다.

가해자를 위장하여 허위글을 작성한 윤모씨의 구속사실이 연합뉴스에 보도되자 인터넷의제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 유언비어임이 확인되면서 천리안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급락하는 동시에(9월 19일 이후 단 6건에 그침) 완전 소멸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론확산과정에 영향을 미친 유언비어성 기사들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거짓임이 확인되면서 의제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사회 내 건전한 여론형성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

사이버공간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역시 대안미디어로서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일반 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의 차이에서도 보았듯이 참여네티즌공간에서의 활동은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확대해감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를 끌어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서명운동을 오프라인 서명운동으로 확대시켜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였고 시민, 지역, 진보 단체와 연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운동의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단지 성수여중사건의 해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운동으로 확대하는 등 운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 나갔다. 이 사례는 사이버공간이 오프라인활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박선희 (2000). 컴퓨터 매개 정치의 패러독스: 전자민주주의와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론학보》, 제44-4호, 61-101.
- 윤영철 (1998). 대안적 매체로서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3호, 184-218.
- 윤영철·나승안 (1999). 신문뉴스의 '가상공간 저널리즘' 활용. 《언론과 사회》, 제24호, 108-146.
- 이수영 (1997). 공론장으로서 한국의 케이블텔레비전. 《한국언론학보》, 제42호, 360-390.
- 임영호 (1998).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노동의 성격변화. 《언론과 사회》, 제22호, 6-39.
- Baym, N. (1995). The emergence of communit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S. Jones (Ed.), *Cybersociety: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community* (pp. 138-163). Thousand Oaks, CA: Sage.

- Benson, T. (1996). Rhetoric, civility, and community: Political debate on computer bulletin boards. *Communication Quarterly*, 44, 359-368.
- Berleson, D. (1992). Media form and government: Democracy as an archetypal image in the electronic age. *Communication Quarterly*, 40, 325-337.
- Brants, K., Huizenga, M., & R. van Meerten. (1996). The new canals of Amsterdam: An exercise in local electronic democracy. *Media, Culture, & Society*, 18, 233-247.
- Calabrese, A., & Borchert, M. (1996). Prospects for electronic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Rethinking communication and social policy. *Media, Culture, & Society*, 18, 249-268.
- Calhoun, C. (1992).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pp. 1-48). Cambridge: The MIT Press.
- Dahlgren, P. (1991). Introduction. In P. Dahlgren (Ed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Journalism and the public sphere in the new media age* (pp. 1-24). London: Routledge.
- Dahlgren, P. (1996). *The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democracy and the media*. London: Sage.
- Doheny-Farina, S. (1996). *The wired neighborhood*.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Friedland, L. (1995). Public television as the public sphere: The case of Wisconsin collaborative projec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9, 147-176.
- Friedland, L. (1996). Electronic democracy and the new citizenship. *Media, Culture, and Society*, 18, 185-212.
- Fraser, N. (1992).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pp. 109-142). Cambridge: The MIT Press.
- Garnham, N. (1992). The media and the public sphere.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pp. 359-376). Cambridge: The

MIT Press.

Habermas, J. (1989). *The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London: Polity Press.

Keane, J. (1991). Liberty of the press in the 1990s'. *New Formations*, 8, 35-53.

Lee, S. (1996). Korean cable television as the public sphere.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yers, D. (1987). A new environment for communication play: On-line play. In G. Fine (Ed.), *Meaningful play, playful meaning* (pp. 231-245).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ublishers.

Schneider, S. M. (1996). Creating a democratic public sphere through political discussion: A case study of abortion conversation on the Internet.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4-4, 373-393.

Schudson, M. (1992). Was there ever a public sphere? If so, when? Reflection on the American case.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pp. 143-163). Cambridge: The MIT Press.

Stromer-Galley, J. (2000). On-line interaction and why candidates avoid it. *Journal of Communication*, 50(4), 111-132.

(최초 투고 2001. 7. 20, 최종원고 제출 2002. 4. 18)

The Agenda-Setting Process in Cyberspace:

The Difference between Open Cyberspace and Closed Cyberspace

Eunhee Park & Sooyoung Lee

(Daej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yberspace produced by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CMC) would perform the public sphere through the agenda-setting process. By doing this,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cyberspace agenda is set and on how th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and the mass media influence the cyberspace agenda-setting process. Through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cyberspace as the public sphere is found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decide this possibility. In particular, in order for cyberspace to contribute to enhancing democracy as a form of alternative media, the interaction among cyberspace, mass media and the off-line arena is a necessary con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cyberspace and mass media regarding the Sungsoo Women's Middle School violence case provides two very important points. First, cyberspace helps the individual agenda to be adopted by mass media as the media agenda. Second, mass media confirmed the credibility of cyberspace agenda through reporting.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s that cyberspace would perform as the public sphere only when the interac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is provided.

Keywords: agenda-setting, cyberspace, public sphere, off-line